

“남월남 패망의 교훈은 우리의 정신적 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운정재단이 설립된 첫 해인 지난 2016년은 재단으로서 참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한해를 시작하는 1월7일 운정의 졸수연卒壽宴을 필두로, 3월에는 2015년 1년 동안 장안의 화제로 회자膾炙되었던 ‘김종필증언록’을 출판하고 이를 축하하는 모임도 가졌습니다. 5월에는 ‘자랑스러운 육사인상’을 수상한 운정이 도열해 있는 후배들의 앞에서, 2008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8년 동안 휠체어에 의지하던 몸을 일으켜 두발을 딛고 일어서 기립자세로 끝까지 사열을 마친 장면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많은 감동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계간으로 창간된 “운정”지는 2호 ‘여름호’부터 군軍 생활과 안보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정의 아카이브를 공개하여 제공함으로써 재단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3호 ‘가을호’부터는 ‘외교활동사’ 편을 시작하여 ‘미국’에 이어 ‘일본’으로 계속 이어졌고, 금년 들어 첫 번째로 발행되는 5호 ‘봄’호에는 운정이 방문한 아시아 여러 나라(17개국)와 관련된 외교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운정은 5.16 혁명 초기인 1961년 10월 중화민국(타이완)을 쌍십절 특사로 방문하여 장개석 총통 등 지도자들을 만난데 이어, 다음 해인 1962년에는 동남아 6개국을 순방하였고, 1963년에는 자의반 타의반 1차 외유로 다시 아시아 8개국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운정은 출국소감에서 “주로 혁명한 나라, 가난하게 살다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든 나라들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단의 소회를 피력하였습니다. 당시 아시아의 정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소위 냉전체제로 공산주의와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정치적으로는 반공과 민족주의의 대두, 경제적으로는 대전의 후유증으로 빈국貧國에서 탈피해야하는 과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6.25전쟁을 치룬 직후여서 반공과 근대화가 국가의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운정의 외교 목표는 혁명의 당위성을 알리면서 반공국가들과 세력 규합을 해야 하였습니다. 이어 1970년대에는 경제부흥을 위한 경제 외교, 1980년에는 민주화와 함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시기에 아시아에서 지도적 위치로 자리 매김하고 변화를 주도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월남의 패망과 중국과의 수교 등 다양한 역사적인 현장에



김 진 봉
(재)운정재단 이사장

서 운정이 몸소 겪어온 족적足跡들은 우리 외교사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록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남의 패망은 아직도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핵무장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의 위험한 도박 앞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하는 일부 세력들의 안전 불감증을 보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월 한국대사관 이대용 공사가 보내온 “남월남패망의 교훈”은 200자 원고지로 100매에 가까운 육필肉筆 원고로 이 시점에서 우리의 정신적 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기고로 명지대학 명예교수인 진태하 박사의 “종래 잘못된 문자정책文字政策과 한자교육漢字教育의 부활復活”이란 제목의 글은 한자와 관련된 문자정책이 잘못되어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우리말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였다는 지적은 한자문화권인 아시아와 관련된 적절한 이슈라 하겠습니다. 한자교육과 관련하여 운정 선생이 한자교육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많은 성원을 해 오셨는지에 대한 일화도 소개되었습니다. 전국한자교육추진 총연합회 창립 50주년 축하 휘호인 ‘측천거사 則天去私’ ‘하늘을 본받고 사사로움을 버린다’는 의미는 10년이 지난 작금의 시국을 예견하듯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지난 1년 동안 재단이 이룩한 성과 중에는 운정 선생이 재단에 기증한 귀중한 사료들을 아카이빙한 것입니다. 1976년부터 1978년까지 3년간 해외 각국의 원수, 수상 및 정치인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받은 8백여 점의 카드와 연하장 등은 다양하기도 하거니와 40여년 전의 문물文物을 짐작케 하는 귀중한 사료들이었습니다. 또한 민주공화당보 제작을 위해 촬영된 사진의 네가티브 필름을 디지털화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한국정당사의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작업이라 하겠습니다. 재단에서는 이러한 기록물들을 관계기관으로부터 평가 받아 재단 설립시 5억 원의 자본금을 11억 3천4백만 원으로 증자하는 업적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업적과 성과는 모두 운정재단을 위해 보내주신 여러 후원자님들의 정성과 관심과 사랑의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재단의 살림을 맡고 있는 이사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雲庭

2017년 3월 31일